

# 근세 일본 지방행정조직의 구조: 오카야마번(岡山藩)의 군카이쇼(郡會所)사례 연구

정하영 중국 중산대학남방학원(中山大学南方学院)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본고는 오카야마번의 군카이쇼를 통해 근세일본의 지방행정조직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군다이(郡代)와 고오리부교(郡奉行) 등의 임명과 승진 등은 기본적으로 가계(家格)에 따라 이루어졌다. 번은 부정부패 방지 혹은 하쿠쇼(百姓)를 보호(혹은 지배)하기 위해, 고오리부교 등 지카타아쿠닌(地方役人)을 조카마치(城下町)에 거주하게 하고, 또한 순회 및 출장을 제한시키고, 군메쓰케(郡目付)의 감시와 감찰기능을 강화시켰다. 이런 제도는 부패와 유착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담당 군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하쿠쇼의 실상에 대한 무지, 소극적인 행정, 역직의 이권화와 부정부패가 생겨났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은 무라아쿠닌(村役人) 및 봉공인(奉公人)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가치(徒) 및 하급(혹은 신참) 헤이시(平士)들은 가계 중시와 후다이(譜代) 등의 역직과 경제력 독점 및 그들의 생활습관에 대해 반감을 갖고 비판을 가했다.

주제어 고오리부교, 이권화, 감시, 봉공인

## I. 머리말

근세 일본에서 지카타(地方, 이하 지방이라 칭함)라는 용어는 원래 마치카타(町方)에 대한 농촌(촌락)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방행정이란 토지 및 조세제도 등을 갖고 하쿠쇼(농민)를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그동안 근세 일본의 촌락(및 자치) 혹은 한국과 일본의 촌락에 대한 비교연구는 있었지만, 일본의 지방행정, 특히 번의 군정(郡政)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조직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그동안 지방행정에 대한 거시적 분석과 지방행정에서의 특정한 조직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세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번주 권력의 강화와 지카타치교(地方知行)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 지배체제와 지방행정 기구의 확립 및 전개과정을 논했거

나, 혹은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촌락의 자치를 논하였다(谷口澄夫, 1995; 服藤弘司, 1987; 田中誠二, 1991).<sup>1</sup> 이런 연구는 번의 지방 지배체제 및 지방 기구 성격 및 역사적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행정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었다. 행정의 실태 혹은 지방행정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와키 타쿠지(岩城卓二, 2010)의 막령(幕領)의 다이칸쇼(代官所), 요시무라 토요오(吉村豊雄, 2013)와 이마무라 나오키(今村直樹, 2015)의 구마모토번(熊本藩)의 데나가카이쇼(手永会所), 모리시타 토오루(森下徹, 2004)의 조슈번(長州藩) 사이반(宰判, 군에 해당)의 감바(勘場)이다. 이들은 기구의 편제와 운영원리, 구성원의 신분, 특히 무사가 아닌 하쿠쇼 출신인 봉공인을 분석했다. 특히 모리시타의 데코(手子) 사이의 인간관계 및 부패, 요시무라의 데나가카이쇼를 기반으로 한 품의제 확립, 이마무라의 데나가카이쇼의 제도적 실태와 인사행정의 분석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분석한 구마모토번과 조슈번은 일본의 주변부 지역에 위치하고 또한 구족(舊族)다이묘가 지배한 번이다. 이와 같이 강한 지역성과 역사성을 띤 이들 번의 특정조직에 대한 연구는 근세 일본의 지방행정조직의 보편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sup>2</sup> 일본에서 그동안 구조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군카이쇼 등과 같은 군 전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전술한 것처럼 대부분 지방제도의 역사적 과정 혹은 제도 변천이나 법령에 근거한 직무내용 등이었다. 그리고 막부도 다이칸쇼를 두지만, 다이칸쇼는 기본적으로 연공징수 사무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막부 간조가시라(勘定頭, 재정담당)의 관할 아래에 있다는 특수성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일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번이 지배 통치하는 범위와 영역이 막령의

<sup>1</sup> 다이묘는 전 영지를 직할지인 장입지(藏入地)와 가신에게 분여하여 지배케 하는 지행지(知行地, 급지(給地)라고도 함, 즉 영지를 말함)로 나눴다. 이를 지카타치교(地方知行)라 하고 영지를 배령 받는 가신을 급인(給人, 영주) 혹은 지교토리(知行取り)이라고 했다. 가신들은 다이묘로부터 지행지를 받는 대신에 다이묘에게 봉공(군역, 노동력 제공 등)을 했다.

<sup>2</sup> 조슈번(슈인다가(朱印高, 쇼군으로부터 공적으로 받은 석고) 약 37만 석, 본번인 하기번(萩藩)과 지번을 합쳐 조슈번이라고 불렀으나 본고는 하기번을 대상으로 함)과 같은 역사가 깊은 번은 위의 사이반. 감바와 같이 독특한 행정 및 직제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지방행정 시스템으로 통치하였다. 이런 독특한 면은 전국시대와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의 패전과 막대한 부채 등으로 인한 역사적 조건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조법(祖法, 번주 선조로부터 전래된 유흥이나 법)의 준수라는 관념이 다른 번보다 강했다. 이런 특징은 구마모토번도 마찬가지다.

다이칸쇼(약 430-460만 석)보다도 더 넓다. 근세 일본의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번이 지배하는 지방행정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가 분석하려는 오카야마번은 혼슈 중부에 위치하고 또한 위의 번에 비해 역사가 그다지 깊지 않기 때문에 근세 지방행정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오카야마번도 다른 번과 마찬가지로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 특수성이란, 일본에서 명군이라 칭송 받는 (실질적)초대 번주 이케다 미쓰마사가 이 시대에 드물게 유교의 인정(仁政)이념에 입각하여 지방통치를 행하였다는 점이다(服藤弘司, 1987: 20; 『岡山縣史』, 1984: 593, 이하 縣史로 표기).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지방행정 시스템이다. 오카야마번의 군정은 군다이와 고오리부교 중심으로 한 군카이쇼가 중심이면서도, 이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감찰 기능을 지닌 군메쓰케(郡目付)와 자이카타시타야쿠닌(在方下役人, 이하 시타야쿠닌으로 약칭)을 두어 야쿠닌과 하쿠쇼를 세세하게 감찰(시)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오카야마번도 다른 번과 같이 근세 일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오카야마번도 행정 및 역직은 군사조직의 격제(格制, 즉, 신분적 서열체제)에 바탕을 두었고, 기본적으로 병농분리와 촌락의 자치 등을 행했다. 다시 말하면, 오카야마번은 특수성도 존재하지만 근세 일본의 공통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례로 선정하였다.

본고의 II장에서 오카야마번의 지방행정체제와 제도를 전체적으로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사무라이 장부(侍帳) 혹은 기록물(留帳)과 봉공서(先祖并御奉公之品書上) 등을 활용하여 수평적 및 수직적 관계(혹은 계층)와 인사행정 등의 조직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가가와 신이치(香川真一)의 자서전 및 이케다 미쓰마사의 일기·유언 등을 통해 조직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들의 행동양식 및 인간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를 분석할 것이다.<sup>3</sup> 서술의 편의상 격제 및 역직, 무사와 봉공인 등을 구분하여 서술한다. 그리고 오카야마번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각주와 결론에서 하기번과 비교분석한다.

본고에서 활용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오카야마번은 원칙적으로 급인은 사무라이 장부에 기입되었고, 급인이 아닌 자는 기리

<sup>3</sup> 가가와 신이치(통칭은 에이고로우[英五郎], 이하 가가와로 표기)는 막말에 고오리부교를 역임하고, 메이지 유신 후에 오이타(大分)현 현령(縣令, 지금의 지사)을 지냈다.

마이 장부(切米帳) 혹은 지배장(支配帳)에 기입되었다. 사무라이 장부는 보통 격제 순으로 표기하고 그의 역직(役職)·소속·석고(石高) 등이 표기되었다. 그런데 본고에서 주로 사용될 자료는 비젠한시초(備前藩士帳, 1711~1716년 작성)와 쇼가츄치교토메(諸家中知行留, 1806년 작성, 이하 지교토메로 칭함)이다. 이들 장부 혹은 기록은 다른 것과 달리 아주 특이하지만, 군정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다. 가신단의 말단인 게이하이(輕輩), 특히 후자는 조리토리(草履取り), 주인의 짚신을 들고 다니는 하인)·약공·직인·상인들도 표기되었다. 그리고 다른 것과는 달리 군카타(郡方, 즉 군정부문, 이하 군방으로 칭함)의 말단직의 격·성명·역직·급미 등도 표기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는 봉공서인데, 이는 가신단이 5년마다 번청에 제출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번주와의 주종관계였다. 구체적으로 가의 출신과 (직계)조상과의 관계, 봉공의 계기, 지행지의 배령, 상속 경위, 역직의 임면 및 주요한 담당 업무 등이었다. 현재의 이력서 내지는 인사평가 자료에 상당한다. 다만, 상급 가신과는 달리 하급 가신의 봉공서는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다. 다행히 하급가신의 봉공서는 오카야마 현립도서관(岡山縣立圖書館) 사이트에서 하급가신의 직계 조상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이케다 문고 제직교대 데이터 시스템(池田文庫 諸職交代 データベースシステム, 이하 제직교대라고 칭함)에서 가신과 그 조상의 역직 및 석고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고 전역(前役, 전임)과 후역(後役, 승진) 등의 이동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헤이시(平士, 장교에 해당)격 이상이고, 부서관 격인 가치(徒)와 잡병인 게이하이 이하는 찾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기존의 연구를 참고할 것이다.

그리고 가가와와 자서전을 분석할 것이다. 이 자서전은 오카야마번의 지방행정 제도와 문화 및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만, 시대적 상황의 이해와 비판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고는 근세 일본의 지방행정, 특히 군카이쇼라는 사례를 통해 군 전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고,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근세 일본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와 문화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오카야마번의 지방행정체제

오카야마번은 슈인다가가 31만 5천석이고 인구는 약 38만 명이었다.<sup>4</sup> 지배지역은 비젠국 전체와 빗츄(備中)국 일부 영역에서의 조카마치와 11개 군이었다. 후에 가모카타번(鴨方藩)과 이쿠사카번(生坂藩)이라는 지번이 생기면서, (빗츄에도 일부 촌이 있지만) 주로 비젠국의 8개 군을 관할하였다. 여기서 1개 군을 예로 들면, 미노군(御野郡)의 슈인다가는 약 5만 5천석, 잔치다가가 약 4만 9천석이었다(『福浜村誌』, 1927: 57). 미노군은 77개 촌에 4만 9천석이므로, 1개 촌은 평균 636석이었다.

오카야마번은 번정 초기 지방행정의 체제와 기구를 확립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 중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 첫째, 1654년 오카야마번은 장입지와 지행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연공률을 정한 지카타치교제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으로 인해 급인은 연공률을 결정하는 권리와 징세권이 박탈되어 마치 봉급자의 신세로 전락하였다. 둘째, 1682년에 군카이쇼를 설치하여 지방행정 제도를 완비하였다.<sup>5</sup> 우선, 지카타치교제에 따른 연공제 개혁과 농정을 알아보기 전에 하쿠쇼가 납부하는 세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쿠쇼는 본연공(모노나리[物成]라고 함)과 부가세(다카가카리모노[高掛物]라고 함)를 납부했다. 본연공은 쌀 수확량의 평균 60%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부가세는 부마이(夫米)·구치마이(口米)·누카와라다이(糠藁)로 구성되었는데,<sup>6</sup> 총 부가세는 (본)연공 약 8.5%를 차지했다(縣史, 1984: 615; 『福浜村誌』, 1927: 58). 따라서 하쿠쇼는 평균

<sup>4</sup> 슈인다가가 31만 5천석이지만, 마타다카(又高, 신전 등으로 확대된 것)는 8만 3천석, 슈인다가와 마타다카를 합친 지다카(地高)는 42만 5천석, 여기서 황무지 등을 뺀 잔치다카(殘地高)가 약 39만 4천석이었다. 이 연공은 잔치다카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일본의 석고 단위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합(合, 180mL, 150g), 1승(升, 1.8ℓ, 약 1.5kg), 1두(斗, 18ℓ, 약 20kg), 1석(180ℓ, 10두 혹은 2.5섬, 약 150kg), 1섬(4두, 약 60kg)이다. 또한 1석은 금 1냥, 은 60뭉매(匁), 전 4,000문(文)에 해당한다.

<sup>5</sup> 본고의 연구대상 시기는 1682년부터 메이지 유신(1868)이 일어난 연도까지이다.

<sup>6</sup> 부마이는 부역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로 연공 100석당 6석이었으며, 구치마이는 연공미의 수송·보관 중에 감손한 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미리 부가한 부가세로 고오리부교의 역료(役料, 직무 수당료)로 사용했다. 연공은 100석당 2석이었다. 누카와라다이는 가츄, 즉 무사의 말 사료용으로 납부하는 세로 연공 100석당 6두 5홉이었다.

68.5%를 세금으로 납부했다.<sup>7</sup> 이 연공과 부가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오리부교가 촌 전체에 연공을 할당하면 나누시의 주도하에 촌 전체 단위로 납부했다. 이를 무라우케(村請)제라고 한다.

1654년까지의 지행지는 급인이 연공률(蠲免이라고 함)을 정했지만, 1654년부터 번은 장입지와 지행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연공률을 정하였다. 그런데 급인의 연공률은 오카야마번의 특수한 상황에서 생긴 나오시다카(直高)를 기초로 산정했다.<sup>8</sup> 그 연공률 중 일정액을 번의 창고 납입하고, 나머지를 지교 모노나리(知行物成)라 하여 급인에게 주었다. 예를 들면 연공률이 38% 이상의 경우라도, 그중 1%는 번 창고에 납입하고 급인은 37%를 받았다(縣史, 1984: 615-619).<sup>9</sup> 그러나 후에 급인의 연공률은 번의 봉록 삭감 정책으로 인해 더욱 낮아졌다.

급인이 아닌 자는 기본적으로 기리마이 장부에 기입됐다. 이들은 장입지에서 기리마이(切米)와 후치마이(扶持米)를 받았다. 기리마이란 여름, 겨울 혹은 봄, 여름, 겨울을 나눠서 지급됐다. 후치마이는, 예를 들면, '30섬(俵) 3인(人)후치마이(扶持米)', 본봉 혹은 가록이 30섬이고 3인 후치마이를 의미한다.<sup>10</sup> 원래 후치마이

<sup>7</sup> 오카야마번에서는 공조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연공을 둘러싼 대규모 혹은 격렬한 잇키(一揆, 농민봉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규모 잇키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공조체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우선, 군메쓰케와 시타야쿠닌을 통해 야쿠닌뿐만 아니고 하쿠쇼까지 세세하게 감찰과 감시를 행하였다. 여기서 잇키가 발생하기 전, 즉 촌내 소동을 결정적으로 해결했던 자가 시타야쿠닌이었다(『邑久町史』, 2009: 435-436). 그리고 오카야마번은 사치금지와 검약령을 반복적으로 내림으로써 신분적 차이(즉 하쿠쇼의 경우 분수(分限)를 지키면서 경작에 전념)를 주입 내지 강제시켰다(谷口澄夫, 1995: 133; 박진한, 2010: 171). 단, 오카야마번에서 1855년에 대규모 잇키가 발생하였는데, 연공문제보다는 검약령의 문제(특히 에타[穢多, 천민]의 의복규제)에서 비롯되었다(『邑久町史』, 2009: 538-543). 이와 대비되는 것은 하기번이다. 하기번은 부가세의 세목을 계속 늘리어 하쿠쇼의 연공납부율이 실제수확(實收高) 73%에 달했다(『下松市史』, 1989: 431). 도쇼쿠(當職, 가한슈[加判衆, 오카야마번의 가로에 해당]에서 한 사람을 선발, 구라모토[藏元, 68개 부서가 모인 장소이자 부서명]의 책임자)에 속하여 감찰을 행하는 메쓰케(目付)가 있고 구라모토 내의 각 부서를 감찰(사)하기 위해 겐시야쿠(檢使役, 오구미 50~60석, 인원 8명)를 두었지만(森下徹, 2012: 143), 오카야마번과는 달리 이들은 무라야쿠닌과 하쿠쇼를 감찰(시)하지 않았고 권한도 크지 않았다. 하기번은 위와 같은 증세를 포함한 하쿠쇼의 착취와 감찰의 미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잇키를 발생시켰다.

<sup>8</sup> 나오시다카(가공의 석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하영(2019b)을 참고하라.

<sup>9</sup> 하기번의 연공률은 40%이었으나 심각한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가신들에게 앞의 연공률 40% 중에서 약 50%를 강제 상납(借知, 치소마이[馳走米]라고도 함)하도록 하였다(田中誠二, 2013: 167-193). 예를 들면, 100석 지교토리는 40석을 받아 이 중 20석을 상납했다.

<sup>10</sup> 1인 후치마이는 1일 현미 다섯 홉으로 연간 약 1.8석(3인이면 약 5.4석), 그리고 1석이 대략 1

는 무가 봉공인을 고용하기 위한 수당을 의미하지만, 역직수당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외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대개 봉공인에게 지급됐다.

무사는 반가타(番役, 무관)와 야쿠가타(役方, 문관)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는 편의상의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오리부교는 반가타이면서 야쿠가타이었다. 근세 초기에는 반가타가 야쿠가타보다 중시되었으나, 평화가 지속되고 다양한 행정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와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점차 야쿠가타가 중시되어 갔다. 가신은 군사 조직(반가타)을 기반한 격제에 따라 야쿠가타에 취임하였다.<sup>11</sup> 오카야마번의 격제는 다음과 같다. 가로(家老, 6가 고정적으로 세습)-반가시라(番頭, 기마부대馬廻, 우마마와리의 대장으로 13~45명)-(요리아이[畜合]-모노가시라(物頭, 아시가루, 즉 보병부대 대장으로 약 50~60명, 이 중 긴슈近習, 주군을 가까이 모신다는 의미 모노가시라가 있음)-긴슈가시라분(近習頭分, 약 8~22명)-구미가시라(組頭, 약 20~30명)-(구미하즈레組外)-헤이시(약 730~840명)-추고쇼(中小姓)-시멧포(土鐵砲, 사무라이멧포라고 읽기도 함)-가치(450~490명)-게이하이(약 550명)-아시가루(약 3,100명)가 있었다.<sup>12</sup> 결론부터 말하면, 헤이시(혹은 추고쇼) 이상이 사분(士分)이고(1707년 기준 759가), 시멧포와 가치는 준사(準士)격이고(1707년 기준 762가),<sup>13</sup> 그 이하는 잡병이다. 그리고 가치 이상은 적자 1명에게 가독(즉 가록 및 격)이 세습됐고, 반가타 중에서 격에 따라 (대응하는) 야쿠카타로 선발되었다. 야쿠카타로 임명되면 역직에 따라 역료가 지급되었다.

량이므로 1.8량이다.

<sup>11</sup> 가신은 조상의 유서(由緒)에 따라 격제와 격식이 정해졌다. 여기서 유서는 역사라는 의미로 조상의 훈공 및 주군을 모신 시기를 말한다. 이는 후다이(譜代) 여부의 기준이 된다. 격식은 가록, 생활 및 의례 서열 등을 말한다.

<sup>12</sup> 인원은 시대에 따라 변동이 있다. 여기서 반가타의 핵심인 반가시라가 지휘하는 조직인 반구미(番組, 오구미[大組]라고도 함)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구미의 편제를 보면, 간에이(寬永) 19년(1642)에는 18조, 호에이(宝永)기간(1711~1716)은 13조, 덴포(天保)기간(1830~1844)은 14조가 있었다. 반가시라 아래에는 구미가시라(1~2명)가 있었고 또한 그 아래에 멧포히키마와시(鐵砲引廻, 1~2명)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헤이시(구미시[組士]라고도 함), 대략 한 개의 조에는 간에이 19년은 13~30명, 호에이 기간은 24~44명, 덴포 기간은 24~45명이 있었다. 그리고 간에이 19년 장부(1642)에는 장부의 마지막 장에 멧포·유미(弓)아시가루가 20~30명이 있었고, 호에이와 덴포 장부에는 반가시라 성명 우측에 멧포아시가루 20명이 기재되었다(정하영, 2019b: 197).

<sup>13</sup> 시멧포격의 역사적 과정과 담당업무를 보면 사분과 구별되는 준사격이다. 그리고 시멧포격과 가치를 엄격하게 구별하면, 시멧포격은 준사의 상급, 가치는 준사의 하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오카야마번의 지방통치기구의 담당부서는 군카이쇼가 있었고, 군다이·고오리부교·지카타야쿠닌(사분)→시타야쿠닌(가치격)→오쇼야→무라야쿠닌(村役人)으로 구성됐다.<sup>14</sup>

군다이는 군정을 총괄하고 고오리부교, 다이칸 등의 지카타야쿠닌을 지휘감독을 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군다이는 모노가시라의 상위격(가끔 반가시라도 있음)인 자가 임명되었고, 역료는 150섬이었다. 인원은 1~2명이었고, 1682년에서 1867년까지의 군다이 35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5년 7개월이었다.<sup>15</sup> 여기서 지교토메를 가지고 군다이에 소속된 직제와 인원을 살펴본다.

이 장부에는 ‘다카기 우에몬의 지배’라고 표기됐는데, 여기서 지배라는 용어는 지휘 감독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소속의 의미도 포함한다. 이들은 다카기 우에몬에 직접 소속되고 그의 지휘 통솔을 받는 자들이었다.<sup>16</sup> 표 1의 시멧포와 가치격은 군다이 밑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나, 지교토메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직명과 담당 업무에 대한 표기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지위와 역할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그들의 권한과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이들 이외에 다른 직을 살펴본다. 군카타구미가시라는 1820년 이후에 사무라이 장부와 제직교대 및 기타 사료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 직은 군다이에게 ‘지배’받지 않지만, 군

<sup>14</sup> 후술하는 것처럼, 오카야마번은 군다이가 핵심이었고 고오리부교는 실무관료적인 성격을 지녔다. 이에 비해 하기번에서는 군정의 실제적 책임자는 다이칸이었다. 하기번은 18개의 행정구역 격인 사이반을 두고 각 사이반 내에 감바를 두었다. 지방행정은 도쇼쿠-고오리부교(300석의 오구미에서 선발, 고오리부교쇼[郡奉行所]의 책임자)-다이칸(250석~40석의 오구미에서 선발)-오쇼야를 통해 통치하였다. 고오리부교는 도쇼쿠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다이칸을 지휘 감독하였으나, 직이 종종 폐지되기도 하였다(田中誠二, 1991: 211). 따라서 하기번의 지방지배의 핵심은 고오리부교가 아니고 다이칸이었다. 다이칸은 감바의 책임자로 자기 밑에 계다이(下代)와 각 부문의 책임자를 두었다(지역에 따라 하급관료의 성격을 지닌 오쇼야 등이 있었음). 계다이는 무큐도오리(無給通, 준사격의 상급)로 다이칸을 보좌하고 간조야쿠(勘定役, 재정) 혹은 산요카타(算用方, 회계)를 담당하였다. 계다이 밑에 아마카타(山方, 산림관리)·지샤카타(寺社方, 사찰관리 및 신앙조사)·후신카타(普請方, 토목공사) 등을 두었고, 또한 이외에도 사이반의 지역 조건 등에 따라 특수한 부문을 두었다. 이들 각 부문 책임자의 대부분 산쥬닌도오리(三十人通, 준사격의 하급)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각 책임자 밑에 데코(대부분 주겐[中間])를 두었다(『下松市史』, 1989: 494-495; 森下徹, 2004: 52-53).

<sup>15</sup> 1630년부터 군다이 4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다이를 확립한 쓰다 사겐타(津田佐源太)부터 계산하고, 또한 메이지 유신 이후 2명이 있지만 제외하였다.

<sup>16</sup> 고오리부교 및 군메쓰케 등은 다른 ‘지배’에 속함. 즉 2층 구조다.

표 1 군다이 '지배(支配)'의 직제

격제	직명/직책/소속	인원	직제	
			석고	비고
(시멧포) 구미가시라	군카타구미가시라(郡方組頭) 사쿠마이카타 겸직	1	250석	사쿠마이카타는 재정을 관장하는 직
추고쇼	다카기 우에몬(高木右衛門) '지배' 추고쇼	1	35섬 4인 후치마이	
시멧포	다카기 우에몬 '지배' 시멧포 격	3	25섬 3인 후치마이~35섬 3인 후치마이	
	다카기 우에몬 '지배' 시멧포	3	20섬 3인 후치마이~25섬 3인 후치마이	1명은 히카타(樋方, 수리 및 하천관리)부교
가치	다카기 우에몬 '지배' 보행(歩行, 즉 가치)격	11	13섬 3인 후치마이~23섬 3인 후치마이(1명은 5인 후치마이)	이들 밑에 '지배'라고 표기하여 게이하이격 4명이 있음(15섬 2인 후치마이)
	다카기 우에몬 '지배' 군(郡) 의사	9	5인 후치마이~10인 후치마이	군 의사로 격이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격이 없음

출처: 『諸家中知行留』

주 1: 다카기 우에몬 지배 군방(高木右衛門支配郡方)은 후술함.

2: 후술하는 군방까지 포함하여 다카기 우에몬이 '지배'하는 인원은 총 80명임(의사 9명은 제외).

카이쇼에 소속되어 재정부문과 다이칸을 지휘 감독하는 자였다.<sup>17</sup> 추고쇼는 근세 중기 이후에 새로 생긴 격으로, 원래 주군이 출행할 때 모시는 역할을 행했다. 이 역할 이외에 어용(御用), 요리, 차도(茶道)관리 등도 했다(정하영, 2019b: 200). 따라서 추고쇼는 군다이의 비서 혹은 군카이쇼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자로 보인다. 시멧포격은 군카타구미가시라의 밑에서 다이칸을 지원 혹은 감독 관리하고, 한편 실무적인 일(예를 들면 히카타부교)을 담당하는 자로 보인다. 가치는 회계·문서작성 및 기록·금전 및 곡물 출납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했고 게이하이 격(표의 비고에서 '지배')을 지휘하는 자였다.

그리고 군다이의 직속기구로서 후신카타와 히카타가 있었다. 비젠한시초에는 각 군에 1명씩 군카타후신부교(御郡方御普請奉行, 헤이시격)가 있었으나, 그 후 장부에서 보이지 않고 (후술하는) 다카기 우에몬이 '지배'하는 군정에 후신쵸부교(普請

<sup>17</sup> 단, 제직교대를 보면 재정부문을 겸직하지 않은 자도 있었다.

定奉行, 가치격)가 있다. 그리고 위의 표와 후술하는 군정에서 히카타부교 등이 있었다. 지교토메에서 봉공인을 징발 및 관리를 하는 닌부교(人奉行)가 있었지만 다른 사료에는 없다.

고오리부교는 연공률 결정·(하급심의)형사와 민사재판·치안유지·법령(觸)전달·인구조사·권농·기아 구제·다이칸의 지휘 등을 행하였다. 고오리부교의 수하에는 속료이고 실질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데다이(手代, 40섬),<sup>18</sup> 무가 봉공인으로서 고오리부교의 신변 보호와 업무 수행을 보좌하는 와카토(若党, 2명, 30섬). 경비·경찰 및 잡무를 하는 자이고멧포아시가루(在郷鉄砲足輕, 5명, 10섬)가 있었다(田中誠二, 1991: 206). 고오리부교는 헤이시격에서 임명되고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100~200석이고 역료는 100섬이었다. 처음에는 1명이 1개 군을 담당했지만, 중후기에는 보통 1명이 2개 군을 담당하였다. 표 3에 근거하면, 고오리부교의 재임기간은 평균 12년이었다. 이케다 미쓰마사는 지방을 세밀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조카마치에 거주하는 고오리부교를 담당 군에 거주시켰다. 그러나 후에 관료주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1682년 다시 조카마치에 거주시켰다.<sup>19</sup>

다이칸은 원래 헤이시에서 임명되고 1군에 2~4명이 있었으나, 고오리부교와 권한이 중첩되어 격과 권한이 조정되었다. 1655년부터 헤이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시멧포(보통 25섬 4인 후치마이)에서 선발하였다. 다이칸은 연공징수와 종문장의 업무를 행했다(田中誠二, 1991: 210). 인원은 영내 30명 정도이었고, 1명이 보통 1만 석을 담당하였고 역료는 30섬이었다(縣史, 1984: 120-124).

군메쓰케는 대부분 오구미의 헤이시(대부분 45~50섬 4~5인 후치마이)에서 선발되었고, 인원은 4명 정도이었고 역료는 40섬이었다. 이들의 직무는 군내를 연중 순회(찰)하고 군의 실태를 군다이에게 보고했다(縣史, 1984: 601). 구체적으로 고오리부교와 다이칸에 대한 감찰과 평가, 무라야쿠닌이 백성에 대한 착취를 조사, 촌 기구의 실태를 조사, 빈곤자의 주거환경 및 식 문제(보리 대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주류제조 및 판매 조사와 적발, 거동이 수장한 자와 행상인 적발, 심지

<sup>18</sup> 급료와 후술의 무라야쿠닌과의 관계 등의 인용문에서 보면, 데다이는 게이하이격으로 보인다. 금후 검토가 필요하다.

<sup>19</sup> 다이칸도 동일한 과정을 겪는다.

어 식목·시비 등에 대한 평가와 관여 등이다(深谷克己, 2009: 267-294; 縣史, 1984: 601-603). 이와 같이 군메쓰케는 야쿠닌과 하쿠쇼를 세세하게 감시 혹은 감찰을 행하였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는 하쿠쇼를 보호하고 돌봐 주는 인정의 이념에서 비롯되었다. 아래의 시타야쿠닌도 위와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오카야마번에서는 위와 같은 세세한 감찰을 위해서 다른 번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역직, 즉 시타야쿠닌이 있었다.<sup>20</sup> 이들은 오쇼야를 역임한 자 중에서 임명됐다(4-5명). 이들은 재직하는 동안에는 가치격의 대우(30점 2인 후치마이)를 받았지만, 퇴직 후에는 다시 하쿠쇼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군의 용수·공사·산림 등의 검사, 부가세 할당의 단속, 황무지 등 조사, 종문장 조사, 군사 사이에 걸친 용수 및 산림에 관한 분쟁 해결 등이었다(『邑久町史』, 2009: 126).

기층에는 오쇼야와 말단기관으로서의 무라야쿠닌이 있었다. 오쇼야는 나누시(名主) 등을 지휘감독하고,<sup>21</sup> 연공을 징수하고, 각종 분쟁 해결에 관여하고, 법령을 무라야쿠닌에게 전달하고, 하쿠쇼의 민원을 고오리부교에게 전달하고, 각종 장부(토지대장·연공징수 대장·호적부 등)를 작성했다. 근세초기 오쇼야(일부의 쇼야도)는 귀농한 전국시대 지방 사무라이 혹은 후손이 임명되었다. 그 지위는 세습적이어서 하쿠쇼 위에 군림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온갖 횡포(橫道, 부정부패)를 부렸다. 이에 번주 이케다 미쓰마사는 고오리부교에게,

지금의 오쇼야 대부분 악습에 젖어들어…상하(관과 하쿠쇼: 필자 주)가 통하지 않고…정직한 자와 횡포한 자를 보고하여라(池田光政日記, 1976: 45).

그래서 번은 1654년에 오쇼야제를 폐지하고 관할 규모와 권한을 축소한 주무라기모이리(十村肝煎) 등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관

<sup>20</sup> 군메쓰케는 1682년에 설치되고 시타야쿠닌은 1704년에 설치되었다. 시타야쿠닌은 사쿠부교(作奉行)에서 비롯되었다. 군메쓰케가 사무라이 신분이기 때문에 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다. 번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하쿠쇼 출신으로 구성된 사쿠부교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직무가 군메쓰케의 기능과 비슷하고, 또한 시타야쿠닌이 설치됨에 따라 권한이 중복되었고 검약이라는 이유로 종종 구조대상이 되었다(縣史, 1984: 603). 이후 사료에서는 이 역직이 보이지 않는다. 상시적인 역직은 사쿠부교가 아니고 시타야쿠닌으로 보인다.

<sup>21</sup> 원래 쇼야(庄屋)로 불렸으나, 1689년에 나누시로 개칭되었다.

료주의가 발생하자 1707년에 오쇼야제를 부활시켰다(縣史, 1984: 607-608). 오쇼야가 관할하는 촌은 7천~8천석에서 1만석 정도, 즉 수십 개 촌이었다(『福浜村誌』, 1927: 54). 오쇼야의 직은 나누시에서 선발되기도 하지만 대개 세습이었다. 급료는 30섬이었고 묘지(苗字)와 대도(帶刀)가 허락되었다(谷口澄夫, 1995: 130).

무라야쿠닌은 나누시(보통 1명이나 대촌에서는 2명), 구미가시라(組頭, 촌의 대소에 따라 1~2명), 한가시라(判頭, 대략 20호마다 1인)가 있었다.<sup>22</sup> 이들은 촌내에서 연공할당 및 징수·치안유지·권농·구제구휼·용수·토목공사 등을 감독했다. 나누시는 이들 사무를 총괄하고, 구미가시라는 나누시를 보좌하고 촌 전체를 감시와 감찰하고, 한가시라는 각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하쿠쇼의 대표로 무라야쿠닌을 감독했다. 이들을 뽑을 때 세습 혹은 입찰(즉 투표)의 형식을 취했다.<sup>23</sup> 나누시 입찰에서는 특정의 후보자 한 사람을 내정하고 신입여부를 묻는 형식이었고, 한가시라의 입찰에서는 득표 수보다는 나누시와 오쇼야의 의향이 존중되었다(定兼學, 1999: 71-77).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고오리부교가 나누시와 구미가시라를 임명하고 오쇼야가 한가시라를 임명했다(谷口澄夫, 1995: 130-131).<sup>24</sup> 나누시의 급미는 무라다카(村高) 100석당 2두이었고 또한 부가세 30석(구미가시라는 20석)까지 면제되었다. 이외 무라야쿠닌의 밑에서 사역(심부름 등 잡무를 하는 역)을 담당하는 호우토우(保頭)가 있었다. 인원은 1~2명이었고 급미는 촌에 따라 달랐다(谷口澄夫, 1995: 131; 『福浜村誌』, 1927: 53).

<sup>22</sup> 하기번의 무라야쿠닌의 명칭은 장입지와 급지에 따라 다양하게 불렸다. 일반적으로 쇼야(1명)와 구로가시라(畔頭, 3명) 등으로 불리었다. 보통 1개 촌의 석고는 2천석 정도이고 인구는 1,000명 정도다(『下松市史』, 1989: 416). 이는 오카야마번의 촌(636석)보다 약 3배가 많다. 따라서 구로가시라가 실질적으로 오카야마번의 나누시에 해당된다.

<sup>23</sup> “오다카즈쿠리(大高作, 모치다카(持高, 소유하고 있는 석고의 양을 많이 소유한 자: 필자 주)를 쇼야로 발탁하라... 소농민(小作者)이라도 정직한 자가 있으면 발굴해서 쇼야로 발탁하라(『池田光政日記』, 1976: 46).”

<sup>24</sup> 대촌에는 한가시라 위에 오한가시라(大判頭)를 두었는데, 오한가시라는 오쇼야의 추천으로 고오리부교가 임명했다.

### III. 군카이쇼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

#### 1. 군다이

전술한 것처럼, 군다이는 대부분 모노가시라의 상위직에서 임명되었고 고오리부교와 다이칸 등의 지카타야쿠닌을 지휘 통솔했다. 여기서 이들의 임명과 승진 루트 및 가의 내력 등을 분석한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 30가 중 2명 이상의 군다이를 배출한 가가 8가이며, 특히 미즈노(水野)가는 3명을 배출하였다. 『봉공서(先祖並御奉公之品書上)』 미즈노 조대부(水野助大夫)에 의하면, 번호 24는 직계가 아니고 방계 후손이고 번호 4와 12가 직계 후손이다. 여기에서 반가시라 이상의 격은 거의 고정화된 것에 비하여 모노가시라격인 군다이는 세습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호 8 하세가와 쿠로다유우의 부친이 표 3의 비젠한시쵸의 5번(長谷川務右衛門)이다. 비록 부친이 헤이시격의 고오리부교이지만, 그는 간조가시라(긴슈가시라분격)와 지사부교(긴슈모노가시라격)를 거쳐 군다이에 임명되었다. 번호 10은 표 3의 비젠한시쵸 4번 니시무라 로쿠노스케(西村六之助, 小四兵衛로 개명)는 고오리부교를 역임하고 오구미가시라·땃포가시라·후신부교를 거쳐 군다이에 임명되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군다이 대부분은 한교·간조가시라·사쿠마이카타 등의 재정부문을 겸직하거나 역임하였다. 이는 군다이직은 전문적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지사부교·마치부교·고코쇼가시라·한교→오메쓰케→군다이 혹은 사쿠마이카타→오코쇼가시라로 승진 코스를 밟았다.<sup>25</sup> 위의 모든 역직은 긴슈모노가시라(즉 번주 측근)이었다. 즉, 대부분의 군다이는 긴슈모노가시라에서 임명됐다. 이는 군다이직은 요직이며, 또한 긴슈모노가시라가 번정을 주도했던 것을 의미한다.

특히 1·2·4는 번주 측근으로 군다이를 거쳐 반가시라로 승격하였다. 이에 비해

<sup>25</sup> 낮은 단계에서 시작한 8·10, 그리고 5·9·12·21은 제외했다.

표 2 군다이 경력과 승격(진)

	성명(재직기간)	석고(석)	전 역직	승격(진)	비고
1	津田佐源太(1682~1703)	500	오메쓰케, 간략쿠부교	반가시라(1,000+500석 가중)	▼★○
2	服部圖書(1682~1691)	500	긴슈가시라분, 샤쿠긴카타	오코쇼가시라, 반가시라(1,000+300석 가중, 겹직 고시오키)	▼★○
3	藤岡勘右衛門(1703~1715)	300(200석 가중)	오메쓰케	재임 중 사망	
4	水野作右衛門(1703~1705)	1천	오메쓰케	반가시라(고시오키)	▼★
5	小堀彦左衛門(1705~1723, 1733~1738)	500	유미가시라	◇요리아이	▼○
6	八木惣兵衛(1716~1721)	500	오메쓰케, △한교, 고코쇼 구미가시라, 텃포가시라	◇요리아이	
7	加世八兵衛(1721~1729)	400	마치부교	◇요리아이	
8	長谷川九郎大夫(1728~1731)	350	간조가시라→지샤부교	재임 중 사망	군다이 재임 중 후신부교 겹직
9	森川助左衛門(1730~1731)	500	후신부교(400석)	은거(퇴직)	
10	西村小四兵衛(1730~1732)	300	오구미가시라→텃포가시라→후신부교	재임 중 사망	
11	船戸久左衛門(1731~1733, 1739~1741)	400	오메쓰케	◇요리아이(가중 100석)	○
12	水野治太夫	1,000	후나부교	반가시라	▼▼★
13	下方覺兵衛(1736~1741, 1745~1754)	1,000	◇요리아이 군방 견습	은거	▼○
14	小堀彦左衛門(1754~1756)	750	오메쓰케	반가시라격(고시오키)	▼▼☆○
15	生形半右衛門(1756~1763)	400(200석 가중)	오메쓰케	오코쇼가시라	
16	森本与惣兵衛(1763~1765)	700	오메쓰케	하타부교	
17	服部頼母(1765~1778)	1,300	☆반가시라격(고시오키격)	★반가시라(가중 200석)	▼▼★ 군다이 반가시라격, 반가시라. 고시오키 겹직
18	広沢喜之介(1778~1782)	550	마치부교	은거	○
19	下方平馬(1782~1788)	1,000		은거	▼▼☆ 고시오키 겹직
20	小川九郎兵衛(1788~1795)	550	소바(側)고코쇼가시라	△한교, 오코쇼가시라	▼

표 2 군다이 경력과 승격(진) (계속)

성명(재직기간)	석고(석)	전 역직	승격(진)	비고
21 津田源右衛門(1795~1800)	600	후신부교	은거	▼▼
22 高木甚右衛門(1800~1813)	500	오메쓰케→간조가시라→ △사쿠마이카타 한교	군다이 겸직 중 반가 시라격(가중 200석)	☆○
23 高桑忠右衛門(1812~1818)	300	유미구미 구미가시라→고 코쇼 구미가시라		▼ 고코쇼 구미가 시라 차석 겸직
24 水野助大夫(1813~1818)	450	△한교→오코쇼가시라 (차석)→◇요리아이	은거	▼▼▼
25 広内權右衛門(1818~1832)	500(100석 가중)	오코쇼가시라 차석, △한 교	오코쇼가시라 차석	▼
26 薄田長兵衛(1832~1837)	350(150석 가중)	오메쓰케, (次)고코쇼가 시라격	멧포가시라	
27 石黒後藤兵衛(1837~1844)	400	오메쓰케	오코쇼가시라 △한교 겸직	
28 上島彦兵衛(1844~1847)	400	△한교→오코쇼가시라	사쿠마이카타	
29 杉山五左衛門(1847~1855)	500(100석 가중)	오코쇼가시라	오코쇼가시라 차석	○
30 梶浦勘助(1855~1858)	500	오메쓰케	오코쇼가시라(100석 가중)	
31 山内權左衛門(1858~1858)	600	마치부교→사쿠마이카타 (1855~1858 군다이 겸직)		○
32 小川九郎兵衛(1859~1861)	550	오메쓰케	◇요리아이	▼▼
33 高桑忠右衛門(1861~1863)	350	마치부교→한교	오코쇼가시라	▼▼
34 広内權右衛門(1863~1865)	600	오코쇼가시라	오코쇼가시라	▼▼
35 日置十左衛門(1865~1868)	1,000	오메쓰케→오코쇼가시라		

출처: 성명과 재직기간은 『岡山市史 1936, 2001~2002』을 재편집. 이외 역직 등은 『先祖并御奉公之品書上』, 『池田文庫 諸職交代』를 참조.

주 1: 시오키(仕置, 가로 3명이 변의 중요 정무를 총괄). 고시오키(小仕置★, 3~5명이 시오키를 도와 만반의 정무를 담당). 오코쇼가시라(大小姓頭●, 소바요닌(側用人, 변주의 측근 비서에 해당)이라고도 함, 가로 등과 변주의 의사 교환을 중개, 1~3명이 있고 필두와 차석이 있음). 고코쇼가시라(兒小姓頭●, 변주의 시종과 잡다한 일을 담당, 1~2명). 오메쓰케(大目付●, 감찰 및 재판을 담당). 사쿠마이카타(作廻方●, 재정 전반을 관장, 1~3명). 한교(判形●, 출납 전반을 관장, 襄判이라고도 함, 1~5명). 지사부교(寺社奉行●, 절과 신사 등 관장, 1~2명). 마치부교(町奉行●, 1~3명). 유미(弓)·멧포(鐵砲)가시라(○). 후나부교(船奉行○, 수군 및 해상 수송을 관장). 후신부교(◎). 간조가시라(勘定頭■, 한교의 부속으로 금전 출납의 계산, 1명). 번호 1 간략쿠(間略)부교는 재정재건을 위한 임시직, 번호 2 사쿠긴카타(借銀方)는 차입조달 업무. ★반가시라격, ☆반가시라격, ◇요리아이, ●긴슈모노가시라격, ◎모노가시라격, ■긴슈가시라분을 표시.

2: ▼ 표시는 동일 가에서 나온 군다이(숫자는 횟수를 표시), ○사쿠마이카타, △한교를 표시.

중후기는 반가시라로 승격한 자가 없었다.<sup>26</sup> 이는 근세 전기에는 번주의 권력이 강한 반면, 중기 이후에는 번주의 권력(자의성)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sup>27</sup> 번호 14·19·22의 반가시라격(番頭格)은 반가시라의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이지 반가시라는 아니다. 또한 13의 요리아이는 반가시라의 아들로 어린 나이에 가독을 상속한 자였고, 5·6·7·11·24·32의 요리하이는 오랜 기간 모노가시라를 역임한 자(혹은 공로자)였다. 그리고 번호 2와 4처럼 부친 혹은 조부가 새로 반가시라가 되었더라도 그 후손(17 반가시라격, 12 모노가시라격인 후나부교)은 그 전격(前格)에서 시작하여 반가시라 혹은 반가시라격으로 승진하였다.<sup>28</sup> 군다이직은 조상의 유서와 훈공이 중시되었다는 것은 아래에서도 볼 수 있다. 번호 8도 역시 후다이가(長谷川九郎大夫, 150석)였고, 번호 10은 군다이가 확립되기 전 군다이 직무를 행한 다이칸가시라(代官頭)를 역임한 니시무라 겐고로우(西村源五郎)의 후손이다. 물론 후다이 중에서도 좌천도 있었다. 번호 1·26·30(1642년 기준 1천석 이상)의 3가가 반가시라에서 모노가시라로 하강됐다. 그러나 유서가 있는 가는 일시적으로 가이에키(改易, 영지 몰수 및 격 박탈) 혹은 절가가 되었더라도 대개 일족의 양자 혹은 이성양자에게 가명이 계승됐다. 단, 가격이 하강되고 봉록이 삭감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29</sup> 이들이 바로 후다이어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서 (근세초기 혹은 막말유신기를 제외하면) 군다이의 임명과 승진에서 중시되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가격(家格)을 기초로 한 능력이었다.

## 2. 고오리부교

고오리부교는 대부분 오구미에 소속하고 조카마치에 거주하면서 야쿠가타를

<sup>26</sup> 막말 유신기에는 인재등용 책으로 인하여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sup>27</sup> 중기 이후에는 반가시라 등의 가격이 고정되어 번주의 권력이 약하였다. 이외에도 번주가 양자일 경우 번주 권력은 더 제한되었다. 이는 데릴사위인 이성(異姓)양자인 9대 번주 모치마사(茂政, 1839~1899)가 가신들의 공갈, 협박 등에 의해 은거가 행해졌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정하영, 2019a).

<sup>28</sup> 혹은 몇 대를 지나면 반가시라로 승격하기도 한다.

<sup>29</sup> 긴슈가시라본 이상은 혼인, 양자 선정, 가독 상속 시에 번주의 허가가 필요했다.

표 3 고오리부교 경력과 승격(진)

성명	석고	전격	승격(진)	비고
비젠한시쇼				
1 泉文之丞(1703~1709)	300		오구미가시라(大組組頭)	○
2 橋本牛右衛門(1705~1707)	100	간조조분(勘定上聞)		●
3 近藤作之丞(1705~1718)	200		루스이(留守居)→오메쓰케	●
4 西村六之助(1703~1721)	200	간조조분	오구미가시라	●군다이 니시무라 코시효에(西村小四兵衛, 개명)
5 長谷川務右衛門(1703~1712)	150			●군다이 하세가와 쿠로다유우의 부친
6 今枝忠左衛門(1705~1720)	250			●
●村井七之助(200), ●渡部助左衛門(150), ●木戸彦次郎(150), ●水野小右衛門(200)				
지교토메				
1 河合權次郎(1805~1812)	150	오구미		●
2 芹川与右衛門(1797~1810)	120	오구미→군메쓰케		●무소쿠, 본명은 이마무라 우에몬(今村仁右衛門)이었으나, 세리가와의 양자가 됨
3 入江清太夫	100			지교토메에서는 入江清太夫이나 기타 자료에서는 없음. 제직교대에서는 이 기간 고오리부교에 石原幸吉이 있음. 금후 검토
4 鶴飼權平(1808~1809)	100	오구미→군메쓰케		○무소쿠
덴포사무라이쇼				
1 福田甚左衛門(1832~1852)	120	고코우쇼(側兒小性)		●아게치아즈카리도코로(御上地御預所役, 후에 가증되어 330석이 됨) 겸직
2 芦田与右衛門(1838~1843)	150	미쓰모리(見積) 부교		●
3 吉田嘉源次(1839~1844)	130	오구미		●
4 谷藤右衛門(1835~1854)	100	오구미→군메쓰케		○무소쿠, 330석으로 가증
5 吉田勘左衛門(1813~1849)	100	오구미→미쓰모리 부교	구미하즈레(組外)	●160석으로 가증
6 石黒八郎兵衛	45첩		가치토우(徒頭) 고코쇼가시라(兒小性頭)	군다이 이시구로 고토효에(石黒後藤兵衛)의 아들

출처: 『寛永10年侍帳』, 『寛永19年侍帳』, 『諸家中知行留』, 『天保士帳』, 『備前藩士帳』, 『池田文庫 諸職交代』, 『先祖井御奉公之品書上』.

주 1: 여기서 후다이 기준은 간에이(寛永) 10년(1633년, 미쓰마사가 도토리에서 오카야마로 임봉(入封)한 이듬해)과 19년의 장부를 근거로 하였다.

2: ● 후다이, ○ 신참을 표시

3: (고오리부교 임명 전의) 무소쿠(無足)는 지행지를 갖지 않고 후치마이나 기리마이를 받는 헤이시임.

4: 간조조분(헤이시격으로 재정부문의 부문장), 루스이(유수로 헤이시격), 가치토우(성안에서 가치토우를 지휘하는 긴슈가 시분), 아게치아즈카리도코로(가이에게 혹은 몰수된 지행지를 관리하는 직)

5: 비젠한시쇼에서 번호가 없는 4명은 제직교대(諸職交代)와 봉공서 등의 자료가 없음.

수행하였다. 이들의 임명과 승진은 표 3과 같다.

고오리부교는 덴포사무라이초의 1번(고코우쇼)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구미에서 임명되고, 신참 3명을 제외하면 모두 후다이이다. 그리고 이들이 가족 내력을 살펴보면, 상급가신과 연고가 있었다. 예를 들면, 가가와(香川) 양가의 내력을 보면,

가가와(香川)가는 조가 가가와 초베에(香川長兵衛, 필두 가로 이기 타다즈구伊木忠次, 3만 7천석임: 필자 주)의 추천에 의해 이케다가를 모시게 되었다(自伝稿, 1959: 56).

그의 양부(香川七大夫)는 오구미를 거쳐 1795~1805년에 고오리부교를 역임하였다(130석, 후에 30석 가증). 그리고 덴포사무라이초 6은 군다이 이시구로 고토효에의 아들로 45석을 받았다. 원래 단독 상속제하에서는 부자 혹은 형제가 동시에 출사할 수 없다. 가독을 상속받지 못한 자(헤야즈미(部屋住)라고 함)가 견습은 할 수 있어도 정식으로 출사를 못한다(정하영, 2019b: 210). 따라서 이는 후치마이 없이 견습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임명 절차에 대해서 살펴본다.

1862년에 고오리부교로 발탁됐는데(22세: 필자 주), 이것은 아마 군다이 마키노 곤로쿠로우(牧野權六郎)가 나를 발탁했다고 생각한다(自伝稿, 1959: 68).

이는 고오리부교는 군다이의 ‘지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다이가 직접 고오리부교를 선발하지 않고 일정한 절차가 있었다는 의미다. 고오리부교(기타 헤이시격, 예를 들면, 군메쓰케 등도 해당)는 용인(用人),<sup>30</sup> 혹은 시오키직 가로들이 첨의(僉議, 그리고 서류첨부)를 거쳐 번주에 의해 임명됐다. 그전에 반가시라(혹은 책임자(支配頭))가 헤이시를 고오리부교로 추천했다(縣史, 1984: 329). 위의 인용문에서 군다이를 마키노 곤로쿠로우라고 했으나, 이 당시 군다이는 다카쿠와 타다우에몬(高桑忠右衛門)이었다. 가가와가 고오리부교에 임명 전에 서양식 대포어용계(西洋大砲御用掛)에 근무했는데, 이 당시 뎃포가시라(鐵砲頭)가 마키노 곤로쿠로우이었다. 마키노 곤로쿠로우가 가가와를 고오리부교로 추천했다는 의미가 정확하다.

<sup>30</sup> 용인은 일반적으로 측근용인이라고 부르는 오코쇼가시라를 중심으로 한 긴슈모노가시라이다.

오구미의 헤이시는 반가시라와 주종관계가 형성되었다.<sup>31</sup> 반가시라가 헤이시의 근무상태·양자 선정·가독 상속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쿠카타 추천에 있어서도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행정역직을 마치면 다시 오구미로 복귀했다(정하영, 2019b: 209). 이는 모노가시라적인 뎃포가시라와 그 부하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군다이가 군메쓰케를 통해 고오리부교(군메쓰케도 포함)를 통제할 수 있더라도, 위와 같은 관계와 상황에서 군다이의 지휘명령계통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고오리부교 자신도 강한 소속감 내지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군정을 행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헤이시격은 조상의 훈공이 크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승진 혹은 좌천이 가능했다. 이론적으로 자격뿐만 아니고 능력과 연공 등이 요구됐다. 그러나 비젠한시초 1을 제외하면 후다이 대부분은 다른 격으로 승진하였다. 반대로 고오리부교로 승진한 자들은 간조우분, 군메쓰케, 미쓰모리부교를 역임한 자들이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신참이 어떻게 고오리부교 및 헤이시격이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비젠한시초 1번의 자료가 없어 아쉽지만, 이런 부류는 대개 특수 기능자 혹은 지방행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지카타묘사地方巧者라고 함)였거나, 혹은 막부나 다른 번 번주의 소개 혹은 추천을 받은 자였다. 지교토메 2는 무소쿠에서 이성양자가 되어 고오리부교로 된 경우다. 덴포사 무라이초 4의 무소쿠는 6대조 조부가 양자로 가독 상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교토메 4의 무소쿠에 대한 사료는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세 중기 이후 헤이시격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무소쿠가 생겼다. 이 시기 가독 단독상속제가 정착됨에 따라 야카이(厄介, 차남 이하)들이 격을 낮춰, 예를 들면 반가시라의 차남이 헤이시격의 양자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정하영, 2019b: 214). 다른 경우는 가치격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격한 자이거나, 이 후손들이 가치격에서 출발하여 수세대를 걸쳐 승격한 자이거나, 편법적으로 헤이시격의 양자가 되어 승격한 자들이 있었다(후술).

전술한 것처럼 1682년 고오리부교를 조카마치에 거주시킨 이래, 처음으로 가와는 농촌에 거주하겠다고 강하게 요구를 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

<sup>31</sup> 헤이시를 구미코(組子)라고 불리며 의사 부자관계가 형성되었다.

#### 다. 첫째,

종전(군카이쇼에서는: 필자 주) 동료들과의 교제에는 아주 나쁜 풍습이 있었다. 먼저 필두로 있는 고참의 환심을 얻지 못하면, 공무의 순서를 알려 주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일개 서생으로 교제 같은 것을 잘 몰랐다. 그리고 비굴한 구가(舊家, 즉 후다이-필자 주)의 밑에 서는 것을 떳떳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의 이런 행위는 동료 사이에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의 순서 등은 대략 자기의 소견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큰 실수가 없다면 다행이었다(自伝稿, 1959: 68).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오리부교 사이에서도 ‘필두로 있는 고참’, 즉 후다이 출신의 고참과 그렇지 않은 신참이라는 격(서열)이 존재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구가(후다이)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자서전 곳곳에서 구가는 인습에 젖어 현실과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고, 사치를 하고 무능력하다고 여기고 있었다.<sup>32</sup>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출신 내지는 환경과도 연관이 있었다(후술). 그리고 고오리부교가 목민관으로서 역할보다는 수동적(혹은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 관료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두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다.

번주 미쓰마사 때, 임명된 8명의 고오리부교가 각각 1개 군을 관할했고, 모두 그 군에서 생활했던 것을 알았다. 이에 크게 감동해서 관에 청해 윤희를 얻어, 거주를 오쿠군의 시모카사카무라(下笠加村)로 옮기고, 오쇼야의 별저에 이주하였다(自伝稿, 1959: 68).

고오리부교는 조카마치에서 생활하고 보통 1명이 2개 군을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 군의 실정과 하쿠쇼의 생활에 대해서 무지하였다.

<sup>32</sup> 예를 들면, “회의가 있어 참석하였는데, 좌중은 모두 쇠국양이론자들이었다. 그중에서도 이시노(石野), 고바야시(小林)의 2명은 권문세가에 빌붙어 양이론자가 되었다. 그들은 내가 서양의 마구(胡馬, 오랑캐 마구)를 타고, 개항론을 설파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일전에 내가 서양 마구를 타는 것을 보고 쫓쫓 하고 침을 뱉었다. 이는 신국(神國)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나는 가난해서 아무리 절약해도 와마구(倭馬具)를 살 수 없다(서양마구의 3배)고 했고, 또한 개항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반론하였다(自伝稿, 1959: 70).”

처음(조카마치에 거주하면서 고오리부교를 담당할 때: 필자 주), 농상(農桑), 촌의 위치, 농민의 고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自伝稿, 1959: 69).

또한 군 실정에 대한 무지는 조카마치에 거주하는 것 이외에도, 고오리부교 등의 순회 혹은 출장의 제한과도 관련이 있었다. 고오리부교 등은 대개 농작 상황 파악과 연공징수할 때를 제외하고는 순회 혹은 출장이 제한되었다. 이는 오카야마번을 비롯한 막령의 다이칸쇼 혹은 다른 번에서도 채택하는 제도였다(服藤弘司, 1987: 208). 고오리부교 등의 야쿠닌이 자주 순회하면 무라야쿠닌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행할 염려가 있었고, 또한 야쿠닌을 접대하기 위해 촌의 비용 등이 사용되어 하쿠쇼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순회 및 출장 제한에 대한 제도는 하쿠쇼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고오리부교가 군내 실정과 하쿠쇼들의 고충을 알 기회가 없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야쿠닌의 부패와 백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했다. 첫째, 고오리부교 등 역직 자체가 이권화 되고 부정부패를 행하였다. 역직의 이권화에 대한 예로, 가가와 신이치의 친부가,

가치로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나, 말년에 조선소 감독관리관(船作事場見届役)에 임명되면서 부유해졌다(自伝稿, 1959: 57).

그리고 본인도 양가인 가가와가의 부채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였으나 서양식 대포어용계에 임명되면서,

봉록 외에 역료가 있어 역료로 의식을 해결하였다(自伝稿, 1959: 64).

물론 역료를 가지고 역직의 이권화로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이권화라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났다. 우선, 가신단의 지행고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1603년 기준으로 가로 6가의 석고가 전체 가신단의 석고에서 40~45%를 차지했고, 이 중 번주 친척인 이케다가 53~61%

를 차지했다. 그리고 전체 가신단(493명) 중 반가시라 이상 25명(약 5%)이 16만 6천석(48.6%)을 차지했고, 이 중 이케다가는 8만 7천석(28%)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반가시라 이상이 지행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을 독점했다. 반면에 3백석 이상이 1603년에는 47%인 반면에 1711년에 33.3%이고 1830년에는 29.6%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100석대는 1603년에는 24%인 반면에 1711년에는 35.9%이고 1830년에는 46%로 증가하였다(정하영, 2019b: 201-211). 표 3의 고오리부교의 석고도 1711년에 평균 190석인데, 1803년과 1830년에는 평균 117석과 120석(6번 45섬 제외)이다. 고오리부교가 석고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카야마번도 다른 번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가신들의 봉록삭감 정책(減知制)을 취하였다. 연공률이 38%→30.5%→30%→20%→20% 이하로 점점 체감해 갔다(谷口澄夫, 1995: 113). 예를 들면, 100석 지교토리라고 하면, 근세전기는 36석이었는데 후기는 20석에 불과했다. 가계를 꾸려 나가야 하고 또한 군역을 수행하기 위해 봉공인(고용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20석으로는 한참 부족했다.<sup>33</sup>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체면상(혹은 규정상) 생활습관 혹은 의례 등을 바꿀 수 없었다. 따라서 대대로 부채가 증가했다. 가가와가 양자로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가족들 앞에서 부채 상황 선언이었다. 야쿠카타에 임명되면 봉록 외에 역료, 고오리부교는 100섬(약 35석)이므로 자기 실질 연봉(120석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석)의 약 1.5배였다.<sup>34</sup> 그리고 뇌물 등 부수입이 있었다.

<sup>33</sup> 이로써 군역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자세한 사항은 정하영(2019b)을 참고하라. 하기번의 근세 중기(1682~1751)에 무사의 부채는 지행 100석당 2간(貫) 500몸매(약 75석)로 연간 실제 수입의 약 5.5배에 가까운 빚을 지니고 있었다(田中誠二, 2013: 191). 따라서 오구미시(大組士, 오카야마번의 헤이시에 해당)들은 후치마이카타나리(扶持方成, 지행지를 번에 반환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후치마이만을 받는 것)와 재향주택(在郷住宅, 가계 재건을 목적으로 조카마치를 떠나 촌에서 거주하는 것)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이용하여 반테(番手, 근세 중후기에는 군사적 측면보다는 주로 에도 혹은 조카마치의 경비·소방 및 치안 등을 담당)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자들이 약 40%에 달했다(森下徹, 2012: 92-98). 위의 40%의 오구미의 빈자리를 무큐도오리 등으로 충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우마마와리슈(馬廻衆)와는 구별되어 쇼신슈(小身衆)로 불렸고, 본래 받은 기리마이와 후치마이를 석고라는 것으로 환산하고 장부를 조작(高直シ)하였다(森下徹, 2012: 21-29).

<sup>34</sup> 하기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야쿠카타를 하면 반테가 면제되고, (다이칸의 급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사료가 없지만) 부가세 중 고즈나기(小費)와 하타다시마이(畠出來)라는 군촌 운영경비가 있었다(『下松市史』, 1989: 429-430).

내가 고오리부교에 있을 때, 뇌물이 횡행하였다. 많은 군재(郡宰, 메이지 원년에 고오리부교를 군재로 개칭, 그러나 문맥상 고오리부교를 군재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 필자 주)들은 이 뇌물로 축재를 하였다. 나는 처음 이것을 고사하거나, 그것을 돌려보냈다(自伝稿, 1959: 71).

여기서 다가네 마나부(定兼学)가 분석한 고닌 구미가시라로 임명된 요시카이(芳介)의 기록을 통해, 고오리부교와 봉공인 및 무라야쿠닌의 관계에서 뇌물 및 향응이 이루어지는 예를 보자.

1858년 10월 와케군 미나미카타무라(和氣郡南方村)의 한가시라 요시카이(芳介)가 고닌구미가시라에 임명되었다. 그는 10월 9일 고오리부교에게 직접 선언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2되 어치의 주류상품권(酒切手二升)을 주고, 데다이에게 술값 금 2부(金二分)와 과자 값 금 1부 2슈(一分二朱)를 주었다. 그날 밤은 오카야마로 동승한 와케군의 나누시와 오쇼야들과 연회를 열었는데, 술값 65모매 중에서 45모매를 지불하였다. 10일에 와케군 3개 촌... 나누시들과 각자 은 1모매씩을 내어 술과 스시를 먹었다. 11일에 귀촌하고, 12일에 히가사시모무라(日笠下村)의 오쇼야의 댁으로 가 옷감(伊予結城) 2단과 송어 9마리를 선물하고, 같은 날 저녁 나누시 댁으로 가 옷감 1단과 송어 5마리를 선물하였다(定兼学, 1999: 78에서 재인용).

위의 예는 고오리부교 등이 인사권(혹은 인간관계)을 매개로 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고오리부교는 조카마치에 거주해서 군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오쇼야 혹은 데다이를 통해 민정을 행했다.<sup>35</sup> 위의 예에서, 특히 데다이에게 금 3부 2슈를 주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전술한 것처럼, 고닌구미가시라는 일반적으로 급료가

<sup>35</sup> 하기번의 다이칸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森下徹, 2004: 53). 여기서 마쓰다가(松田家)의 유키소(幸曾)를 통해 사이반야쿠닌의 임기를 알아보자. 유키소는 번 전체의 18개 사이반 중 6개 사이반을 2~3년마다 이동하였고, 또한 1개의 사이반 내에서도 2~3개의 부서이동이 있었다(県史編さん室, 2012: 2-3). 이에 비해 데코는 역직을 독점화하고 퇴직이나 병에 걸렸을 경우 아들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 감바의 실제적 운영은 이들이 주도하였는데, 이들은 뇌물·서류조작·물품매각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행하였다. 이들은 상인과 야쿠닌들과 결탁하여 부정한 돈으로 가신단의 저택을 사들이고 호화롭게 살았다(森下徹, 2004: 58). 원래 번은 군사적 관점에서 조카마치를 조성하고 격에 따라 저택 위치와 평수를 엄격히 규정하였다.

없고 부가세 면제(20석 면제, 약 1.5석)를 받았다. 구미가시라 치고는 거액(약 0.8석)을 테다이에게 제공했다. 이는 (고오리부교가 지역 실정을 모르므로) 테다이와 오쇼야가 구미가시라의 임명에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테다이와 이들은 하쿠쇼 출신이라는 동류의 식이 있어 밀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무라 야쿠닌직도 이권화되어 이들 사이 향응·선물교환·뇌물 등 부정부패가 행해졌던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비록 오쇼야가 근세전기의 사무라이 혹은 토호 같은 신분이 아닌 실무적인 야쿠닌이 되었더라도 그의 직무상 강한 권력, 예를 들면, 오쇼야는 고오리부교를 대신하여 촌에서의 분쟁 혹은 소송 문제에 개입하여 사적 이익을 꾀했다(田中誠二, 1991: 202-204). 위와 같은 구조와 오쇼야의 강한 권한으로 인하여 오쇼야직도 이권화되어 엽관운동이 횡행했다(懸史, 1984: 612). 셋째, 전술한 것처럼, 군메쓰케는 감찰뿐만 아니라 군내 모든 업무에 관여하였다. 원래 고오리부교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고오리부교와의 권한 중첩 및 중복됐다. 더구나 그마저 근세 후기에는 군메쓰케와 시타야쿠닌의 감찰 기능이 저하되어 부정부패가 횡행하였다(懸史, 1984: 613).

### 3. 가치격의 야쿠닌

우선 장부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방의 직위(명)와 인원 및 업무 등을 살펴보자.

비젠한시초는 ‘군방지배’로 기입되었고 지교토메에서는 ‘다카기우에몬 군방’으로 기입되었다. 군방은 주로 군내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치는 주로 수리·구휼·토목공사·창고 및 번소의 관리의 부교 내지 책임자 및 지역문제 해결 등의 업무를 행했다. 게이하이격은 주로 기능적인 업무, 예를 들면, 수리 및 하천관리·금전 및 곡물 등의 출납·문서 작성과 관리 및 전달·산림관리·선박 감시 및 관리·경비·테다이·요리 및 주방과 관련된 급사 등의 업무를 행했다. 그런데 지교토메에서는 주로 군다이 직속 기구(수리부문) 위주로 표기되었다. 반면에 사용인, 주방 및 요리 부문, 초대소 관리 등의 야쿠닌이 표기되지 않았다.<sup>36</sup>

<sup>36</sup> 게이하이 중 4명은 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위의 직명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 군방 직제

격제	직명	비전한시초			지교토메			
		인원	급미	비고	직명	인원	급미	비고
헤이시	마구간 감독관 (御用廩見届)	2	92.4/78.5	마구간과 말을 감독관리	오코쇼가시라구미 등으로 이관			
시멧포	마의(馬醫)	1	42.3		장부에 없음. 군다이'지배'가 아니고 말과 관련된 업무는 오코쇼가시라구미'지배', 기타는 한교(判形)'지배'로 표기되었음.			
	우마노리카타 (御用馬乘方)	1	50	말 사육과 조련				
	에즈카타(繪圖方)	1	30.3	그림과 지도 작성				
	자이노보리멧포구라부교(在上)鐵砲藏奉行)	2	31.3/30.3	멧포 등의 무기고 관리				
가치	사창 감독관 (社倉方見届)	1	20.2	구휼미 관리	장부에 없음			
	자이카타 시타야쿠닌	4	30.2		특수 역직이고 군다이의 '지배'가 아니므로 표기되지 않았음.			
	후나가시라(船頭)	2	33.3	선박감시 및 관리	선박감시 계다이 (船改下代)	1	15.2	△케이하이 계다이(下代)는 부교 등에 배속된 말직
	히카타시타부교 (樋方下奉行)	3	23.3	수리부문 부(副)직	부교(奉行)	1	23.3	▲
					부부교(副奉行)	2	23.3/18.3	▲
						1	18.2	△
					테다이	2	18.2/15.2	△
					목수(大工)	2	18.3	△
	가타가미 오쿠라부교 (片上御藏奉行)	1	39.4	장입지에서 수납한 쌀을 보관하는 창고 관리	장부에 없음			
	번소(番所)	2	30.3/26.3		석산 단속	1	30.2	
케이하이	미즈반(水番)	1	18.2	관개용수 감시	장부에 없음			
	산부교(山奉行)	1	18.3	산림행정				
	산림경비 및 관리(山廻り)	10	9.1에서 25.2까지 각기 다름					

표 4 군방 직제(계속)

격제	직명	비전한시초			격제	직명	지교토메		
		인원	급미	비고			인원	급미	비고
	군카이쇼 오쿠라조 (郡會所御藏所)	2	13.2/12	창고를 관리하고 금전, 곡물, 자재 등 의 출납을 관장		후신 조부 교(普 請方 定奉 行)	1	21.3	▲
	야시키번소(屋敷番)	3	21.2(2명)/ 12.2두 (1명)	저택 경비 및 관리			2	18.2	△
	고코우엔(御後園)	2	22.2/12.2	후원 경비 및 관리		토오 미케 미(遠 見番)	2	13섬 1두 6승/ 3인 후치 미	△ 선박 감시 및 난파 선 구조
	군카타토메초 (御郡方留帳)	1	18	서기, 즉 문서 및 장 부 관리					
	군카이쇼츠우 (御郡會所通)	1	10.3	문서수발 및 연락 책					
	군카이쇼요우닌 (用人)	2	22.1	책임자(장)의 지시 를 전달하고 서무 를 담당					
	초대소 관리 (御茶や番)	1	13.3			철물 관리	1	15.2	
	취사(食たき)	1	18						
	요리(にかた)	1	15.2						
	식기 등의 급사 (椀方)	1	22.1						
	군카이쇼로 대기(郡 會所へ相詰)	2	15.2/10.1			通 ひ子	2	15.2	△ *정확한 직무는 불 명확,
1. 총인원 55명 2. 묘지가 없는 자(취사, 요리, 급사 각 1명, 사용인 2명, 산 림경비 및 관리 2명)					1. 총인원 48명 2. 묘지가 없는 자(산림관리 4명, 철물관리 1명, 히카타테다이 1명, 토오미케미 2명, 목수 2명, 이들 이외에 직명이 표기 되지 않은 자가 4명)				

출처: 『備前藩士帳』, 『諸家中知行留』

주 1: 지교토메에서 ▲은 가치격, △은 게이하이격을 표시. 급미의 숫자에서 .은 섬과 후치마이, 예를 들  
면, 15.2는 15섬 2인 후치마이를 표시.<sup>37</sup>주 2: 덴포사무라이쇼에서는 추고슈인 신전 재정 감독관(新田方御賄見届, 1명), □□카타 감독관(□□  
方見届, 1명)이 있음.

시뻘포격과 가치격은 각 책임자(役頭)부터 제출(伺出, 추천 혹은 품의된 자를 첨의하여, 가로의 승인을 거쳐 임명됐다(懸史, 1984: 329). 가치의 업무가 실무적이어서 능력이 요구됐다. 또한 이들은 현장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역 및 기층의 실정을 잘 알았고, 또한 이들은 상급가신들과는 달리 다양한 계층과의 관계를 형성하였다(정하영, 2019b: 218).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승진과 대우는 낮았다. 우선, 위의 표에서 가치격의 급료를 평균 계산하면 약 24.5섬 3인 후치마이(약 14~15석)이다. 가치격은 조카마치에 거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업무에 전념하려면 30석 이상이 필요했다. 더구나 이들은 부업도 없었기 때문에 가신단 중 가장 비참하게 생활했다(磯部道史, 2003: 305). 가가와 생가의 궁핍한 생활 예,<sup>38</sup>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은 빛도 없고, 또한 자산( 재산)도 없었다. 그래서 부모는 절약을 하고, 평상시에 쌀밥에 보리를 섞었고, 대개 야채와 두부를 먹고, 생선은 1개월에 겨우 4~5번 정도만 먹었다. 짜고 매운 된장국의 맛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가끔 외할머니 있는 곳에 가 쌀밥을 먹을 때 너무 맛있었다. 어찌면 진해진미보다 더 맛있었다고 느꼈다. 당시 아침과 저녁 두 끼를 먹었는데, 뜨거운 밥에 찻물을 말아서 먹었다. 이는 중등이하 일반의 풍습이었다(自伝稿, 1959: 59).

가치격의 생활을 다른 격과의 비교가 필요한데, 우선 가가와 양가의 예로 사본의 가계 상황을 살펴본다. 양가의 가록이 150석, 이 당시 연공률이 대략 20%(30석) 정도였다. 그의 양부가 고오리부교를 역임하는 기간(1795~1805년)에는 어느 정도의 역료수입이 있었겠지만, 봉공서 등의 자료에서 그 후의 역직이 나타나지 않는다.<sup>39</sup> 관례상으로는 다시 오구미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양부가 역

다. 예를 들면, 아래의 사례인 쇼지로가 주방에서 급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아 그 직위는 여전히 있었다.

<sup>37</sup> 지교토메에서 격이 표기되었지만 가치 14명, 게이하이 13명은 직명이 표기되지 않았다. 반면에 비젠한시쇼는 직명은 표기되었고, 점선으로 격을 구분한 것 같지만 약간 불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점선과 석고 등을 참고하여 격을 작성했지만, 금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sup>38</sup> 친부가 가치메쓰케(徒目付)이었고 봉록이 22섬 3인 후치마이, 약 11.85석이였다.

<sup>39</sup> 가가와는 1853년에 양자가 되고 1856년 양부 사망에 의해 가독을 상속했기 때문에 양부는 1856년까지 생존하였다. 부언하여, 가가와는 1862년에 고오리부교가 되었다.

직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30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한다. 비록 이 당시 군역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더라도 대부분 무사의 가(家)에는 가추(家中)봉공인(무사가 고용한 봉공인)이 있었다.<sup>40</sup> 이 당시 봉공인의 급료가 3량 혹은 4량(磯田道史, 2003: 337-338), 만약 2명의 봉공인이 있었다면 6석 혹은 8석이 필요했다. 또한 이들에게 또한 의식주(1명이 1년간 소비하는 식사량이 1석)를 제공해야 했다. 이들에게 지출한 것이 8석 내지 10석이다. 그러므로 가가와와 양가는 대략 20~22석으로 생활해야만 했다. 그런데 가가와와 양가가 돼서 양가의 생활수준과 습관을 보고 놀랐다. 양가에는,

단골로 오는 생선 장수가 요리를 하고... 안마사, 고물상 등의 비천한 자들이 집에 출입하여 밥이나 의복을 구걸하거나, 강매를 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많아 점점 빈곤에 빠지고, 또한 빚을 갚지 않은 부채가 점점 많아졌다(自伝稿, 1959: 67).

그래서 가가와와 양가는 부채상황을 위해서,

우선 가독 상속을 물려받은 날에 친척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 명절 등 축일에 국 하나 반찬 하나로 차리는 것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친모와 양모 등이 기뻐하지 않았다. ... 나는 의복 및 가구(세간) 등을 팔아서 의식을 해결했는데, 이것도 또한 다 팔아서, 결국 처와 여자들의 옷까지 팔았다. 이런 조치에 대해 양모는 거부하고 허락하지 않았다(自伝稿, 1959: 67-68).

가가와와 양가의 친부 생활의 사례에서도 사분의 생활수준을 볼 수 있다. 친부는 가치메쓰케→후나사쿠지부교(舟作事奉行, 1845~1848)→고후쿠부교(呉服奉行, 1948~1964, 간척지(新地) 120석)으로 승진하였다.

(친부가) 말년에 부유해져 평생 살던 일자형(一字型)의 가옥을 새로 신축하고, 갑주 4벌, 칼 2자루를 마련하고, 가재도구 등 집물을 잘 갖췄다(自伝稿, 1959: 57).

<sup>40</sup> 군역규정과 봉공인에 대해서는 정하영(2019b)을 참고하라.

이는 그의 친부가 사분인 조선소 감독관리관 혹은 후나사쿠지부교가 되고 나서 부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분은 (봉록이 삭감되고 사치로 인해) 부채가 많아도 그들은 여전히 가치와는 다른 생활수준과 양식을 갖고 있었다.

가치 이상의 당주가 사망하면 자손이 가독을 상속했으나 게이하이 이하는 가명이 단절(봉록 및 가명의 상속이 안 된다는 의미: 필자 주)된다(自伝稿, 1959: 59).

위의 구절은 가치 이상은 가독이 상속되는 무사라는 의미다. 가치는 추고쇼 혹은 헤이시로 승격도 가능했지만,<sup>41</sup> 각각의 단계에 큰 장벽이 존재했다. 일반적으로 특수 기능자(예를 들면 의사 혹은 유학자) 혹은 양자의 루트 혹은 수 세대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가치가 사분으로 승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sup>42</sup> 그러면 가치의 아들인 가가와가 어떻게 사분의 양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근세 초기부터 지참금 양자를 비롯한 야쓰카이진(役介人, 방계친을 부양을 한다고 입적시키는 것)이 유행하였다(『池田光政日記』, 1976: 65). 가가와가 지참금 양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인원과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추론도 가능하다.

오카(岡, 생가: 필자 주)가와 가가와(香川)가는 인척이다. … 이때(양자가 될 때: 필자 주) 양가는 부채가 많아 가계가 무척 어려웠고, 여기에 2~3년간 흉사가 세 번(양가의 숙모, 양부와 양부의 아들: 필자 주)이나 있었다. 양부의 장례비용은 오카가, 아오야마(青山, 처가: 필자 주)가에서 각각 500모메(匁, 합계 1貫目)를 빌렸다. 나중에 그 돈을 다 갚았다(自伝稿, 1959: 67).

<sup>41</sup> 만약 승격이 되었더라도 헤이시 이하는 부친의 전격 혹은 동격(同格)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가가와와 친부도 양자인데, 그 양부는 추고쇼이다. 친부는 가치격에서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수 세대를 걸쳐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하기번의 마쓰다가에서도 볼 수 있다. 조부는 쌀 헌납으로 쇼야→(쌀 헌납)고토쿠코(御利徳雇, 후에 사무라이야토이[士雇]라고 칭함)·묘지가 허락→(쌀 헌납)사이반야쿠닌→(헌금)산쥬닌도오리가 되고, 부친은 사무라이도오리→산쥬닌도오리→일대(一代) 무큐도오리→무큐도오리가 되고, 손자는 무큐도오리→지교토리(20석)가 되었다(県史編さん室, 2012: 2-3).

<sup>42</sup> 가가와와 친부의 승격은 막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선 가가와와 그의 자서전 등에서 보면, 생부와 생모(早川) 및 누이의 시가도 가가와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일본의 족보와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이성양자가 있어 복잡하지만, 가가와와 친부도 하쿠쇼 출신인 아시가루의 막내아들로 야쓰카이진이라는 편법으로 가치격이 되었다(磯部道史, 2003: 295). 이에 비해 양가는 후다이가로 사회통념상 인척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sup>43</sup> 가가와도 친부와 같이 지참금 양자로 보인다.<sup>44</sup>

#### 4. 게이하이 이하 봉공인

이소다 후시미치(磯部道史)가 분석한 가가와의 친백부인 쇼지로(庄次郎)를 예를 들어 게이하이 이하 봉공인을 분석하고, 또한 가치와도 비교를 하려고 한다. 히라사부로(平三郎, 즉 가가와와 친조부)의 둘째 아들 쇼지로는 23세 때 다이야쿠(大役, 잡역)로 군카이쇼에 봉공하였다. 그는 33세에 아시가루나미(足輕並, 나미라는 말은 부류라는 의미)로 군카이쇼다이도코로조후(御郡會所御台所定夫, 조후는 정식인부라는 의미)가 되고, 주방 식기(椀方) 등을 담당하는 급사가 되었다(12섬 2인 후치마이, 약 7.49석). 44세에 군카타고가시라(御郡方支配小頭格, 고가시라는 아시가루 10명 정도에서 책임자라는 의미)가 되었고(15섬 2인 후치마이), 53세에 군카타게이하이(御郡方支配輕輩)가 되고 또한 묘지가 허락되어 간바야시쇼지로(上林庄次郎)로 개명하였다. 76세에 군카타가치(御郡方支配御徒)로 승진하였다. 그는 가치격으로 승진할 때까지 15석(연공납입, 7.0535석)을 경작하면서 군카이쇼로 출퇴근하였다(磯部道史, 2003: 289).

우선, 그의 승진루트를 살펴보면, 다이야쿠→아시가루 나미(조후 혹은 데다이)→고가시라→게이하이→가치이다. 또한 위의 승진루트와 표 4의 게이하이에서의 급사를 보면, 쇼지로는 급사의 업무를 계속 담당하면서 승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1704년 기준으로 농촌거주자(호적) 중에서 가쥬봉공인은 6,288(남자 4,105, 여자 2,183)명이 있었고, 번 직속 봉공인의 아시가루 봉공인은 2,269(남자 2,174, 여자 95)

<sup>43</sup> 가가와가 1953년에 양자 들어갈 때, 친부는 사분인 고후쿠부교이므로 양가와 동일한 자격이었지만, 가가와가는 후다이가 아니었다.

<sup>44</sup> 오카야마번에서는 법규상 그리고 의식상, 혼인은 대개 동일 격에서 이루어졌다(정하영, 2019a).

명이 있었다. 여기서 여자는 가족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번 직속 봉공인은 2,174명이 있었다.<sup>45</sup>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봉공인의 인원과 종류를 알아보자. 모리시타가 분석한 죠토우군(上道郡) 오노에무라(尾上村, 1699년)에서 배출한 봉공인 중에서 번 직속 봉공인은 아시가루 2명·코비토 15명·다이야쿠 1명이 있었고 가츠허공인은 21명이 있었다(森下徹, 1995: 184). 이소다가 분석한 1844년 미노군(御野郡) 쓰시마무라(津島村) 신야(新野) 부락(50호)에서 가츠허공인 5명과 번 직속 봉공인 33명이 있었다. 이 중 번 직속 봉공인은 고비토(14명)·뎃포조의 아시가루(1명)·군카이쇼 다이야쿠(3명)·문지기 및 야쿠쇼의 데다이 등으로 근무하는 자(6명)가 있었다(磯部道史, 2003: 286-287). 신야라는 작은 부락에서 배출한 봉공인 중에서 군카이쇼에서 근무하는 자가 (고비토, 게이하이 등을 제외하더라도) 다이야쿠 3명과 히카타데다이 1명이 있었다. 오카야마와 인접한 군은 미노군·죠토우군·고지마군(児島郡)인데, 이 중 출퇴근이 가능한 촌을 고려하더라도 군카이쇼에서 근무하는 야쿠닌의 89명보다 훨씬 많은 봉공인이 군카이쇼에서 근무하였다.<sup>46</sup>

게이하이는 군다이의 ‘지배’를 받고(즉 게이하이 임명은 군다이에 있다는 의미) 업무의 성격과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엄밀한 의미의 봉공인이 아니지만, 그들은 하쿠쇼 출신으로 봉공을 시작했고 또한 전술한 것처럼 가독상속권이 없었기 때문에 봉공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봉공인은 가격과는 관련 없이 능력과 연공(혹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승진이 되었다.<sup>47</sup> 그러나 쇼지로와 같이 가치격으로 승격도 있었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이었다(磯部道史, 2003: 291). 이런 구조하에서 게이하이 이하

<sup>45</sup> 그리고 조카마치 거주자는 남자만 223명이 등재되었는데, 이는 단신으로 조카마치에 거주했던 것을 의미한다(<https://www.weblio.jp/wkpja/content/검색일: 2020. 11. 17>)

<sup>46</sup> 89명은 군다이, 고오리부고, 다이칸, 군메쓰케, 시타야쿠닌 제외하고 의사 9명 포함한 숫자이다. 군카이쇼에서 근무하는 봉공인의 정확한 숫자에 대한 자료는 없다. 하기번의 1855-1859년의 무급장(無給帳)을 보면, 지카타주겐이 235명이 등재되었는데, 18개 사이반이므로 1개 사이반에는 최소 13명 이상이 있었고(<http://www.furi-316.net/index.html#/검색일: 2021. 3. 1>), 또한 지역에 따라 오쇼야 아래의 봉공인 등이 있고 쇼리(小吏, 사환)가 있었다. 사이반보다 규모가 작은 구마모토번의 테나가카이쇼는 20명 이상이 있었고(今村直樹, 2015: 233), 막령의 다이칸쇼는 다이칸(하타모토(旗本)과 데후(手附, 코케인(御家人), 1명) 외에 봉공인이 25~30명이 있었다(服藤弘司, 1987: 26).

<sup>47</sup> 쇼지로가 10년 간격으로 차차 승진하고 게이하이 20년, 총 53년을 근무한 한 뒤 76세에 가치로 승격하였다.

봉공인들은 가치로 승격하기 위해 지참금양자 혹은 야쓰카이진이라는 편법까지도 사용했다.

표 4에서와 같이 게이하이 급료는 각각 다르지만 표준은 15섬 2인 후치마이이었다. (쇼지로의 예를 보면) 아시가루는 12섬 2인 후치마이, 고비토 등은 1853년 전에는 6섬이었다가 그 이후 상승해서 10~12섬이 됐다(森下徹, 1995: 43). 이들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모치다카를 갖고 경작을 하였다. 쇼지로가 아루가시일 때의 총수입은 11.7 석이었다.<sup>48</sup> 이는 가치격의 급료(25섬 3인 후치마이)와 비슷하였다. 쇼지로는 53세에 게이하이로 승진하여 급료도 오르고 경작지(모치타카 15석, 연공납부 후 약 7석)에서 나오는 수입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가치와 게이하이 및 봉공인의 수입과 생활에 대해 두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소다의 연구에 의하면, 신야 무라에서 모치다카 15석 이하에서 한 집을 제외하고 모두 무가 봉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 아홉 집이 부자 혹은 형제가 동시에 봉공했다(磯部道史, 2003: 284). 이는 가치 이상의 무사들은 1명만 출사할 수 있고 또한 가독은 적자 1명에게만 상속되는 것과 비교된다. 둘째, 어느 번이나 연공은 주로 쌀 수확량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적으로 쌀 수확 후의 보리 이모작·곡물·채소 등 부식물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번에 따라) 설령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율이 낮았다. 따라서 하쿠쇼를 포함한 봉공인은 식(食)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자급자족이 가능했다. 위의 상황과 조카마치와 농촌의 물가 차이를 고려하면, 신분이 낮은 게이하이 이하 봉공인의 수입이 가치의 평균 수입보다 실질적으로 높았거나, 혹은 차이가 없었다.<sup>49</sup>

<sup>48</sup> 모치타카 9석 정도에서 연공납부 후 4.2석에 급료 7.5석을 계산한 것이다.

<sup>49</sup> 다만, 이는 모치다카 10석 정도를 소유했거나 한 집에서 어느 정도 모치다카가 있고 부자 혹은 형제가 함께 봉공을 하는 경우다. 1762년 오노에무라에서 모치다카 10석 이상은 20명이고, 그 이하는 56명, 특히 0~2석이 22명이다(森下徹, 1995: 90). 가치는 무사 신분으로 봉공인과는 다른 격식을 받고, 후손 대대로 자식 1명에게 가독을 상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봉공인 등은 가치로 승격하려고 하였다.

#### IV. 맺음말

본고는 오카야마번의 군카이쇼를 통해 근세일본의 지방행정조직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오카야마번은 군카이쇼가 설치됨에 지방행정조직이 완비되어 가고, 또한 이와 더불어 야쿠가타가 중시됨에 따라 긴슈모노가시라가 번정을 주도해 갔다. 군다이는 대부분 재정부문(혹은 감찰)을 역임한 자에서 임명되었고, 또한 대부분 재정부문을 겸직하였다. 고오리부교의 임명 및 승진과 가독 상속에서 후다이가 신참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번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고오리부교를 조카마치에 거주케 하고 또한 순회 및 출장을 제한시키고 군메쓰케의 감찰기능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오리부교는 촌과 백성의 생활에 대해 무지하였고, 오쇼야 혹은 데다이를 통해서 군정을 행했고,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역직의 이권화와 부정부패가 생겨났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은 무라야쿠닌 및 봉공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치는 군카이쇼에서 중간관리자 혹은 현장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능력에 비해 급료 등의 대우는 낮았고 승격하기도 어려웠다. 이들은 상급가신의 역직과 경제력 독점 및 사치스러운 생활과 무능력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게이하이 이하 봉공인은 하쿠쇼 출신으로 현장에서 실무적 혹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능력과 연공이 중시되었다. 내부에서 나름대로 연공과 능력(및 인간관계)에 따라 승진루트가 존재하지만 가치로의 승격은 제한되었다.

여기서 군정의 책임자인 오카야마번의 고오리부교와 하기번의 다이칸, 그리고 이들에 속해 있는 야쿠닌 및 봉공인 등에 대해 비교한다. 우선, 고오리부교와 하기번의 다이칸은 관할구역에 대해 군사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또한 하쿠쇼에 대한 직접적 통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권한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이들은 재판과 기타 행정 사무를 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연공률 결정과 징수였다. 다만, 오카야마번에서의 연공징수를 위해(고오리부교의 지휘를 받지만) 다이칸을 따로 두었던 것에 비해, 하기번에서는 다이칸 직속의 게다이가 연공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기번의 다이칸은 게다이를 포함한 직속 야쿠닌이 많다는 점에서 오카야마번의 고오리부교보다는 권한이 컸다. 전술한 것처럼 고오리부교와 하기번의 다이칸은 조카마치

에 거주해야 되고 또한 순회 및 출장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관할 지역에 대해 무지하여 지방행정의 사무를 야쿠닌 혹은 봉공인 및 오쇼야에게 의존하였다.

오카야마번의 자이카타야쿠닌의 임기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전술한 것처럼 하기번의 사이반야쿠닌은 2~3년마다 교체되었다. 사이반야쿠닌도 오카야마번과 같이 준사격이고 조카마치에 거주하면서 실무적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기번은 오카야마번과 달리 격제가 불안정하고 애매모호한 격(사무라이야토이 및 쇼신슈)이 있었기 때문에, 오카야마번에 비해 승격이 쉽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기번에서는 부농 혹은 쇼야가 쌀 현납 혹은 현금을 통해 승격하였지만, 오카야마번에서는 현금은 없었고 주로 양자(지참금양자도 포함)라는 형식으로 승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봉공인에서 준사격·준사격에서 사분으로 승격은 아주 어려웠고, 설령 사분으로 승격하였더라도 후다이(대부분 급지를 갖는 우마마와리)와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두 번 모두 야쿠쇼 내에 야쿠닌보다 많은 봉공인이 있었고, 그들은 명확한 급료를 받았고, 그 안에 승진루트도 있었다. 전술한 오카야마번의 쇼지로의 예를 보면, 그는 급사의 업무를 계속 담당하면서 승진이 이루어진 것 같다. 하기번의 데코는 임기 제한 없이 역직을 독점화하고, 심지어 퇴직 혹은 병이 생기면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 물론 오카야마번에도 부자 혹은 형제가 동시에 봉공인을 할 수 있었지만,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관행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두 번 모두 봉공인은 가독이 상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의 가계가 역직을 독점하지 못하는 구조였다. 다만, 이들은 고오리부교와 다이칸 및 야쿠닌들과는 달리 업무와 지역 사정을 잘 알았고, 또한 지역 내에서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위와 같은 구조로 인해 부정부패가 생겼는데, 하기번이 오카야마번에 비해 부정부패가 더 심했다. 오카야마번은 주로 인사권과 재판 등에 관련하여 뇌물이 오간데 비해, 하기번의 데코들은 상인 및 야쿠닌 등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행하였다. 하기번의 부패는 위와 같은 구조하에서 데코의 문제도 컸었지만, 근본적 원인은 가신단의 막대한 부채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하기번은 오카야마번에 비해 감찰 기능이 약했다. 오카야마번은 감찰 기관이 완비되었고, 비록 근세 중후기에 이르면 감찰기능이 약화되었더라도 야쿠닌 및 봉공인에

계는 감찰(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충분하였다.

투고일: 2021년 2월 18일 | 심사일: 2021년 3월 23일 |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일

## 참고문헌

### 사료

『寛永10年侍帳』

『寛永19年侍帳』

『備前藩士帳』

『先祖并御奉公之品書上』

『日本思想大系38·近世政道論(池田光政日記(抄·遺言))』(岩波書店, 1976).

『諸家中知行留』

『香川真一遺稿, 自伝稿(上)』(谷口澄夫, 『瀬戸内海研究』, 第12号, 1959).

『天保士帳』

### 지방지

『岡山県史: 近世I』(1984).

『岡山市史』(1936~1938).

『福浜村誌』(1927).

『邑久町史: 通史編』(2009).

『下松市史: 通史編』(1989).

### 저서 및 논문

박진한. 2010. 『일본 근세의 서민지배와 검약의 정치』. 해안.

정하영. 2019a. “근세 일본에서 다이묘가(家)의 가족제도: 오카야마번 이케다가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8권 1호, 1-40.

\_\_\_\_\_. 2019b. “사무라이 장부에서 본 근세 다이묘가(번)의 가신단 구조와 문화: 오카야마번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2권 1호, 183-224.

吉村豊雄. 2013. 『日本近世の行政と地域社会』. 東京: 校倉書房.

- 今村直樹. 2015. “近世後期の手永会所と地域社会: 領国地域行政機構論.” 『日本近世の領国地域社会 熊本藩政の成立・改革・展開』, 191-239. 東京: 吉川弘文館.
- 磯田道史. 2003. 『近世大名家臣団の社會構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_\_\_\_\_. 2008. 『江戸の備忘録』, 東京: 朝日新聞出版.
- \_\_\_\_\_. 2018. 『江戸の家計簿』, 東京: 宝島社.
- 谷口澄夫. 1995. 『岡山藩』, 東京: 吉川弘文館.
- 服藤弘司. 1987. 『地方支配機構と法』, 東京: 創文社.
- 岩城卓二. 2010. “掛屋と代官所役人. 宇佐美英機・藪田貫編.” 『都市の身分願望(『江戸』の人と身分, 1)』, 120-148. 東京: 吉川弘文館.
- 森下徹. 1995. 『日本近世雇用労働史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_\_\_\_\_. 2004. 『近世瀬戸内海地域の労働社会』, 東京: 溪水社.
- \_\_\_\_\_. 2012. 『武士という身分-城下町萩の大名家臣団』, 東京: 吉川弘文館.
- 深谷克己. 2009. “民政官僚への在廻令.” 『深谷克己近世史論集 第2卷(偃武の政治文化)』, 266-296. 東京: 校倉書房.
- 田中誠二. 1991. “藩制機構と家臣団. 藤井讓治編.” 『日本の近世: 支配のしくみ』, 169-230. 東京: 中央公論社.
- \_\_\_\_\_. 2013. 『萩藩財政史の研究』, 東京: 塙書房.
- 定兼学. 1999. “村役人選任をめぐる: 岡山藩における村役人仲間形成の前提.” 『近世の生活文化史: 地域の諸問題』, 65-112. 東京: 清文堂出版.

#### 잡지 및 인터넷 자료

- 県史編さん室. 2012. “土雇」として仕えた人々.” 『山口県史だより』 29号.
- 岡山縣立圖書館. <http://digioka.libnet.pref.okayama.jp/>(검색일: 2019. 2. 17).
- “江戸時代の日本の人口統計\_主な藩の人口調査.” <https://www.weblio.jp/wkpa/content/>(검색일: 2020. 11. 17).
- 池田文庫諸職交代 データベースシステム. <http://ousar.lib.okayama-u.ac.jp/ikedake/shoshiki/ja>(검색일: 2019. 3. 1).
- “山口県の近世史(安政2-6年の分給帳・無給帳).” <http://www.furi-316.net/index.html#>(검색일: 2021. 3. 1).

## Abstract

## The Structure of Reg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Early-Modern Japan: A Case Study of Gunkaisho in the Okayama Domain

Hayoung Choung Nanfang College of Sun Yat-sen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structure of the regional administration in Early-modern Japan through the organization of the Okayama Domain. Gundai and Koribugyo (magistrate of a country) are appointed and promoted according to the family status.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of officials and to protect (or dominate) farmers, the domain government has allowed local officials to live in castle towns, restricted their touring and business trips, and monitored and supervised them through controlling the superintendent officer of the district. In spite of having these systems to prevent corruption and collusion, officials still do not possess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county and the sufferings of the local peasants under such circumstances. So, they performed negatively in the administration. Consequently, this encouraged more corruption when the officials were seeking higher positions. There were no exceptions for the village officers and servants of samurai. On the other hand, Kachi (Foot Guards) and lower-ranking warriors were not satisfied. They criticized the culture of over-dependence to the family status, the monopoly of official positions, the economic power by the higher-ranking samurai (Fudai), and the dominance over their lives.

**Keywords** | Koribugyo, seeking higher position, monitoring, servants of samurai

